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사목회장 : 유인웅 다 윗 오일공-오파오-칠육삼팔
 이범준 요 셉 사일오-이육오-일오오사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사무장 : 주정희 마리아 육오공-육칠팔-일이삼오

2026년 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녹) 연중 제4주일] **2026년 2월 1일(제2171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TEL 510-553-9434 근무시간 : 화(5pm~8pm), 토/일(8am~4pm)

E-mail: standrewoak@gmail.com
 홈페이지: WWW.OAKCC.ORG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대건관 1호, 3호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시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수요일 오전 11시 토요일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제1독서 스바니야 예언서 .2,3; 3,12-13

화답송

-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26-31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5,1-12L

영성체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성가]	8시	입당	38	봉헌	221	성체	501	파견	12
	11시	입당	38	봉헌	221	성체	501,499	파견	12
연중 4주일	2월 1일(주일)			2월 3일(화)	2월 4일(수)	2월 5일(목)	2월 6일(금)	2월 7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미경 말가리다	황해정 데레사		이명련 파트리샤				꾸리아	
독서	김원덕 시몬 김영선 안젤라	김학철 요한 오지영 효주아네스		이명란 아네스				꾸리아	
제의방	이선미 에스더	허홍숙 세실리아		허홍숙 세실리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묵주기도			이명련 파트리샤	이명련 파트리샤					

공동체 소식

성당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 주세요(초록통 : 음식물, 회색통 : 재활용, 고동통 : 잡쓰레기).

■ 오늘은 연중 제4주일입니다. 만물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욕망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을 찾도록 합니다.

■ 미사안내

후임 신부님이 부임하시기 전까지

- 주일 미사: 오전 8시, 11시

집전 사제: 정홍철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미사예물 check payable to: Jesuit Community at JST

- 평일 미사: 수요일, 토요일 오전 11시

집전 사제: 오대석 바오로 신부님

*미사예물 check payable to: Dae Seuk Oh

- 화/목 저녁 미사는 없습니다.

*후임 김학배 안젤로 신부님 부임 일정은 미정입니다.

* 미사 봉헌 예물은 해당 주간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한달 또는 장기 봉헌은 당분간 중단합니다.

■ 매 수요일, 토요일, 교중미사 30분 전에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 2월 묵주기도 지향 : 오시는 신부님을 위하여

■ 2월 성경 통독

-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1,1-25

■ 2월 7일 토요일 미사 전례: 꾸리아

- 꾸리아 월례회의 : 2/7(토) 9시, 교육관 106호

■ 박정은 소피아 수녀님 영성 특강

- 일시: 2/8일(일) 교중미사 후, 교육관 106호

- 주제: 이주의 황무함, 그 안에 거하시는 하느님

*수녀님의 영성 특강은 2026년 상반기에 매월 1회

- 3월: 성서, 이민의 기록, 4월: 매일 새롭게

5월: 일상의 영성 6월: 노년의 영성

*2/8일(일) 영성 특강에 참여하실 분은 성당 입구 접수대에 신청해 주세요.

■ 초축복식

- 2월1일(일) 교중미사 후 초축복식이 있습니다.

■ 성지 회수

작년 성지주일에 축복한 성지를 2월 15일(일)까지 성당 입구 성지 회수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성지는 재로 만들어 재의 수요일에 재 없는 예식 때 사용하게 됩니다.

■ 대건회 동계 수련회

- 날짜: 2월 6일(금) - 8일(일)

- 장소: Lake Tahoe, 리노 근처

■ 설날 합동위령미사

- 2월 17일은 한국 고유 명절 설날입니다.

- 일시 : 2월 15일(일), 11시

- 합동위령미사를 신청하실 분은 2월13일(금)까지

사무장 주정희 마리아 자매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사예물 check payable to: Jesuit Community at JST

■ 2차 현금 안내

- 오늘(2/1일) 미사중에 베트남/필리핀 태풍피해 원조기금 마련을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 모임 및 회의

- 총구역회의: 2월 1일 오후 12:30 교육관 106호

- 사목회의: 2월 1일 오후 1:30 교육관 106호

- 샌리엔드로: 2월 8일 영성특강 후 교육관 106호

- 라스모어: 2월 8일 영성특강 후 교육관 107호

■ 밥나눔 안내

- 이번 주에는 밥나눔이 없습니다.

- 다음 번 밥나눔: 2월 8일

- 문의 : 송성숙 아네스 자매님 (오일공-삼칠오- 오일사찰)

■ 공동체 기도 지향

조상희마리아, 정화봉로사, 최라파엘, 전옥분크리스티나, 황정숙 말저나, 권주선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스아론조발바라, 박숙모아네스, 박인규시몬, 김옥자마리아, 임희숙세트리다, 이수인 안드레아, 조지현 안젤라, 하숙연베로니카, 신재극스테파노, 최혜자벨라데다, 이기석 보나벤투라, 임윤택 루시아

■ 세금 보고서를 위한 봉헌금 납입 증명서 신청

- 봉헌금 납입 증명서는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

■ 성당 시설 이용 준수 사항

- 성당 시설을 이용하실 단체는 사전에 반드시 공동체 시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주중에 성당 친교실 또는 부엌 등을 이용하신 후 반드시 소등과 문단속을 확인하여 주세요.

- 혹시 성당 게이트문이 열린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시면 행정직원(오일공-육일공-칠육팔육)에게 곧바로 연락주세요.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본당 청소(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문의 : 이덕용 안드레아(오일공-칠칠삼-사삼팔삼)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요안나(2/4) - 아가다(2/5)

■ 안기민 사도요한 신부님 귀국 인사 말씀

- 덕분에 무사히 한국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송별연회를 마련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송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인간됨으로 향하는 하나의 조건 뿌리 내림

매년 같은 날들임에도 우리가 새날이라고 이름 지어 부른 것은 어쩌면, 새로운 맘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겠다는 어떤 결심일지도 모른다. 새해가 밝았고, 우리는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앞에서 있다. 오늘도 사랑보다는 미움과 오해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전쟁의 소식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날아든다. 시몬 베유는 인간됨으로 향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뿌리내림을 이야기했다. **인간이 되어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싶다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피어난 꽃을 발견하고, 상처받은 인간성에 대해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런데 어쩌면 인류는 이미 오래전에 뿌리가 뽑혔는지도 모른다. 상처받은 우리들,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 앞에, 지구 곳곳의 아픔에 대해 할 말을 잃은 채 멍한 눈을 들어 무력감을 곱씹고 있는 우리들은, 실재와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내는 진짜보다 더 그럴듯한 실재 앞에서 혼동을 겪는 우리는, 무너지는 환경을 난감해서 바라보는 우리는, 어쩌면 뿌리 뽑힌 사람들일지 모를 일이다. 그러다가 생각해 본다. **뿌리가 뽑힌 채, 남의 땅에 몸 붙여 사는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늘 있었고, 성서를 통해 보이는 구원의 경륜은 늘 뿌리 뽑힌 사람들 사이에서였음을.** 그렇다면, **뿌리가 다 드러난 우리 삶의 자리는 어쩌면 하느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라고 하는 절박한 초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새해를 맞으면서, 도대체 희망적이지 않은 이 때엔 어떤 희망을 품어야 하는 걸까 하는 비뚤어진 의문을 가졌었다. 그 의문과, 그 의문이 가지는 내 생의 태도에 대해 숙고하다 나의 이 질문은 자체로 성립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에게 희망이란 말 자체가 오직 하늘나라를 염두에 두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나의 질문은 하늘에 희망을 품은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지를 고민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다 부질없는 망상일 뿐이다.

뿌리 뽑힌 상태로 사는 21세기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결국 하늘에 뿌리를 두는 나무가 되는 것이다. 인도의 바니안(반얀)나무는 거꾸로 크는 나무인데, 어디선가 날아온 뿌리가 땅에 터를 잡고, 그렇게 뿌리를 내린다는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자기의 뿌리를 하늘로 뿜어 간다고 한다. 웬지 이렇게 거꾸로 자란다는 바니안나무에서,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진다. 뿌리가 날아가 땅에 자리를 잡는 거룩한 순간, 그분은 세례를 받으시고, 의무를 충실히 채워 가실 그분의 매일은 더욱 깊어지실 것이다. 맑은 물 아래 몸을 담그신 예수님의 첫걸음을 바라보다, 뿌리 뽑힌 많은 사람으로 가득한 세상 속, 그 안의 나를 본다.

내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서류 미비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이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추방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많은 사람이 추방당했다. 신앙인의 삶이 순례라는 것, 여행이라는 비유가 현실이 되어 버린 오늘, 내가 꿈꾸고 희망하는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필립 3,5)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희망을 두어야 하는 것은 어떤 법이나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 됨에 있고,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것은 마지막 시간에 완성될 하느님나라를 갈망하는 종말적인(apocalyptic) 꿈을 되새기게 된다.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산다는 건

그렇다면, 세상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들은, 하늘에 뿌리를 두고 대신 옆으로 가지를 뿜어 가야 한다. **하늘에 뿌리를 둔 나무들은, 옆 가지와 함께 어깨를 견고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 현대의 경제와 사회 구조가 소외를 부추기고, 살아가는 형태가 점점 외로워질수록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만 한다. 그것은 결국 우연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경청하면서 서로를 부축하는 일이다. 세상의 거센 바람을 이기며, 함께 하늘나라를 희망하는 그런 작업이다.

세례를 받으러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의 뒷그림자를 묵상하다,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장자권과 축복을 욕망한 야곱이 떠오른다. 그는 욕망했고, 그래서 추방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리고 고단한 몸을 돌베개에 의지하여 눕히던 그날 밤, 그는 하늘나라의 사다리를, 하늘에 뿌리를 두는 삶을 보았다. 그렇다고, 그의 삶은 순탄하였나? 물론 그렇지 않았다. 그래도 자기의 하느님을 만난 야곱은, 가장 그다운 모습으로 변해 갔다. 이방인으로 살면서 많고 많은 어려움을 만나야 했지만, 하늘에 뿌리를 둔 사람으로 변해 갔다. 어느 만큼 인생을 살고 나서, **누구의 삶이던 고통이 없을 수 없고, 아픔에서 면제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하늘에 뿌리를 둔 나무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사랑을 그리고 사람을 선택하는 일임을 어렵듯이 깨닫는다.**

나의 일상이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힘겨운 작업은 하늘이 사람이 되신 그 신비가, 요르단강물에 잠기는 순간에서 시작된다. 그럴 때, 나의 일상은 반복되는 (지루한) 어떤 신앙 고백이나 시간 맞춰 드리는 기도 행위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시간을 열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기쁨을 만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어떤 시인의 말처럼, '마치 수술대 위의 우산과 재봉틀의 우연한 만남이 만들어 내는 뜻밖의 아름다움'을 찾으면서. 세상은 오늘도 연일 그리스도를 못 박고, 오늘 예수님은 또 새로운 일상 속을 곳곳이 걸어가신다.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주일학교	총
미사참례인원	40	226	8	266

주일미사			2차 헌금		교무금	Bishop	감사 헌금	성소	빈첸시오	황금빛
8시	교중미사	주일학교	8시	교중미사						
[교무금] 윤춘주(1), 이덕용(1), 이소지(1-6), 최윤기(1), 유석(1), 최정안(1-2), 신공진(1-3), 김복희(1-2), 김영선(1), 함주성(1), 이경섭(2-3)						이덕용 최윤기	이옥희	이덕용 김영희 최윤기	김영희	안기민 사도요한 신부님

+미사지향

날 짜	연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연	지 향	봉 헌 자
2/1(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2/1(일)	연	박요셉/정율리아나	박미자 율리아나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연	최순일요셉	가족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정윤순 아가다	전윤자 데레사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연	김형준 시몬	가족	2/1(일)	생	전데레사/전알렉스 가정	천다니엘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송아네스/장요한아일랜드	천다니엘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생	원은규 안젤라	부모
	연	김준철 어거스틴	김 켈뚜르다		생	송성숙 아네스	강선진 실비아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생	안기민 사도요한 신부님	강선진 실비아
	연	김마르코	가족		생	사제와 수도자	이에스터
	연	김재성 제이슨	김지호 알렉스		생	권영랑마리크리스티나 수녀님	이에스터
	연	윤Dana 요한	정혜경 데레사		생	오향숙 보나	엠포트리샤
	연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가족				
	연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고영남 안드레아	2/4(수)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RON LWIN				
	연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대녀	2/7(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박정희 율리엠타	김원덕 시몬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천성배	천다니엘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천성배	강신호 요한		연	장민우 배난시오	송아네스
	연	김청수 바오로	김용찬 프란치스코		연	한동설 안젤로	가족
	연	유낙양 베로니카	가족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유낙양 베로니카	임유지 비비안나		연	이숙강 엘리사벳	가족
	연	유낙양 베로니카	정혜경 데레사		연	이용 요셉	이소지 마리아
	연	박요셉/정율리아나	박미자 율리아나		연	부모님	김제랄드
	연	부흥신 마티아	부건화 요셉		연	본당 선종 연령	선종봉사회
	연	Frank Terrence	김젼마		연	이남희 세레나	이바오로 가정
	연	김형철 바오로	이자영 엘리사벳		생	최명희 임마폴레타	이 카타리나
	연	장민우 배난시오	전데레사		생	김지호 알렉스	김엘리사벳
	연	장민우 배난시오	박경림 클라라		생	이한진 미카엘	이바오로 가정
	연	장민우 배난시오	이안드레아/아네스		생	이명국 바오로 가정	이바오로 가정
	연	장민우 배난시오	박덕희 마리아		생	최젼마 수녀님	엠포트리샤
	연	장민우 배난시오	권마가렛		생	한윤정 아가다	최명주 젼마
	연	장민우 배난시오	임유지비비안나		생	김태용 요한	최명주 젼마
	연	장민우 배난시오	김젼마				
	연	장민우 배난시오	강선진 실비아				
	연	장민우 배난시오	한안젤라				
	연	이흥태 알비나	이에스터				
	연	연옥영혼	이에스터				
	연	조베로니카	조원미				

<p>Samuel Kim 건강 보험 전문 메디케어/메디칼 처방약 보조. ACA 무료상담 (510)418-0243 samkim515@gmail.com CA Lic. #4474816</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p>	<p>폴킴 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510)847-5837 DRE #01851957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 Associates</p>
---	--	---	--